



(사진: 김보라 기자)

‘2025 전주대학교 전국음악경연대회’ 성료… 재능과 열정의 향연

지난 8월 30일, 예술관 일대에서 ‘2025 전주대학교 전국음악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이하 학생대회)는 피아노, 작곡, 관악, 현악, 타악기 부분으로 나뉘었으며, 참가 자격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재학생, 홈스쿨링 학생 포함)이었다. 참가자는 연령에 따라 ▲초등부 I (1~2학년) ▲초등부 II (3~4학년) ▲초등부 III (5~6학년) ▲중등부 ▲고등부로 구분되었으며, 모든 부문은 자유곡 연주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타악기의 경우 마림바 자유곡으로, 작곡의 경우 3부 형식 피아노곡으로 3시간 이내에 작곡하는 방식으로 치루어졌다. 또한, 올해로 2회를 맞은 전국아마추어음악경연대회(이하 아마추어대회)는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실내악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참가 자격은 올해 기준 만 19세 이상 비전공 일반인이며, 음악 관련 전공 학위소지자나 전문 연주자는 제외되었다. 아마추어대회도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 ▲청년부(만 19세 이상~35세 이하) ▲일반부(만 36세 이상~59세 이하) ▲시니어부(만 60세 이상)로 나누어 진행했다.

실기대회는 초·중·고등학생 피아노 부문과 아마추어의 모든 부문은 JJ아트홀에서, 관악, 현악, 타악기 부문은 227호에서, 작곡은 309호에서 이루어졌다. 순서는 당일 대기실에서 추

첨으로 결정되었으며, 작곡을 제외한 모든 대회는 일반에 공개되어 관객 입장이 가능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총장상, 최우수상부터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학장상이 수여되었다. 고등부 대상 수상자는 우리 대학 공연예술학과 3년 이내 입학 시 4년 수업료 면제를 받으며, 1~3등 수상자는 내년 공연예술학과 입학 시 장학금이 지급되는 특전이 있다. 또한, 학생대회와 아마추어대회의 대상, 최우수상, 금상, 1등 수상자에게는 추후 기념 음악회 무대에 설 기회가 제공된다.

고등부 관·현악 부문에 참가한 한 학생(군산 상일고)은 “너무 빨리 연습한 만큼 뽐내지 못해 아쉬움도 남지만, 끝나서 후련하기도 하다”라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2025학년도 2학기 미디어센터 사령

■대학신문사 임명

[편집장]

전지은(한국어문학 23)

[취재부]

부 장 | 양예은(한국어문학 20)

정기자 | 오유진(행정 21)

손민기(게임콘텐츠19)

마경진(한국어문학 20)

김주은(한국어문학 23)

수습기자 | 김소리(영화방송학과 23)

조민영(한국어문학 23)

김소율(소프트웨어융합 25)

이동현(인문콘텐츠 25)

[편집부]

부 장 | 김예은(시각디자인 22)

정기자 | 김예진(시각디자인 23)

오수현(영화방송 23)

수습기자 | 이예원(한국어문학 23)

김보라(영화방송 23)

위 사람을 9월 24일부로 상기직에 임명함.

■교육방송국 임명

[국장/부국장]

국 장 | 최윤서(방사선 23)

부국장 | 김지훈(한국어문학 20)

[운영부]

부 장 | 이예진(영화방송 24)

[기획부]

일반국원 | 김수현(행정 24)

김민정(중등특수교육 25)

[편집부]

부 장 | 박민서(영화방송 24)

일반국원 | 장주원(영화방송 23)

김민혁(경영 25)

한승우(상담심리 23)

[기술부]

부 장 | 이동현(정보통신공학 22)

일반국원 | 강예인(영화방송 25)

강유진(산업공학 22)

안민서(금융보험 25)

임정민(정보통신공학 22)

신입국원 | 김정훈(영화방송 20)

[아나운서부]

부 장 | 안수립(한국어문학 24)

일반국원 | 성보은(보건관리 24)

박지윤(상담심리 24)

위 사람을 9월 24일부로 상기직에 임명함.

자유전공학부 정원 확대 및 사범대자율전공학부 신설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었다. 올해는 자유전공학부 입학정원 확대, 사범대자율전공학부 신설, 달란트 전형 도입이 주요 변화로 눈에 띈다.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자유전공학부 정원은 176명에서 196명으로 20명이 증가했으며, 사범대자율전공학부가 신설되어 1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자유전공학부는 교육부의 ‘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 정책’에 따라 2024년 우리 대학에 처음 도입되었다. 일반적으로 1년간 전공 탐색의 시간을 갖는 타 대학과 달리, 우리 대학은 1학기동안 기초 및 심화 교양과 1학점으로 구성된 전공 맛보기 강의를 수강한 후 희망 학과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 대학은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의 원활한 대학 생활을 돕기 위해 RC 교육, 리더십 캠프, 전공박람회 운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폭넓은 분야를 경험하고, 본인의 적성과 관심에 맞춘 전공을 선택했다. 지난 학기 자유전공학부의 중도 탈락률은 4.3%로, 학생들의 높은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이에 올해에는 기존 정원에서 20명이 늘어난 196명을 선발

한다.

새롭게 도입된 사범대자율전공학부는 다양한 교과 역량을 갖춘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전공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되었다. 신입생들은 1학년 1학기를 마친 뒤 가정교육과(2명), 과학교육과(3명), 국어교육과(2명), 수학교육과(3명), 영어교육과(2명), 중등특수교육과(3명) 중 희망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한편, 두 전공학부 모두 ‘달란트 전형’이라는 새로운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달란트 전형’은 교과성적(상위 3개 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의 원점수 성적을 각각 40%와 60%로 반영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이 전형은 자유전공학부와 사범대자율전공학부 외에도 인문콘텐츠대학과 경영대학의 통합선발 전형에도 적용되며, 2026학년도에는 총 250명을 ‘달란트 전형’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복의 게임’ 개최

지난 9월 3일,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전주대학교 평화관 주차장에서 ‘사복의 게임’ 행사가 열렸다.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맡은 제37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한 체험 부스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 부스를 방문할 때마다 스탬프를 모으고, 획득한 도장으로 뽑기에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받는 즐거움을 누렸다.

현장에는 OX 퀴즈, 부채 만들기, 플리마켓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게임 부스에서는 영화 오징어 게임 속 전통 놀이를 진행하여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 수익금 전액을 국제 아동 구호 단체인 세이브 더칠드런에 기부하는 판매 부스도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제37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는 “사복의 게임은 9월 7일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회가 주관한 행사”라며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학과 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했다. 나아가 전 학과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재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며, 선후배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 재학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의 기획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해져 다채로운 캠퍼스 풍경이 만들어졌다.

|김소리 기자(sorikong02@jj.ac.kr)



▲ 학생들과 사복의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사진: 김예진 기자)

‘어려움 속 믿음과 은혜’...2025학년도 2학기 교직원 예배



▲김홍종 목사의 축도와 함께 교직원들이 예배하고 있다. (사진: 김예은 기자)

지난 9월 9일(수) 오전 11시, 본교 대학 교회에서 2025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아 교직원 예배가 진행됐다. 이날 예배에는 한병수 선교봉사처장을 비롯한 우리 대학의 많은 교직원들이 자리했다.

예배는 백승연 목사와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됐다. 이어 대표 기도를 맡은 한병수 처장은 “우리가 지식을 가르칠

뿐 아니라 지혜를 쌓아내는 교직원이 되고, 학생들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라며 “분주한 날들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께 귀 기울이는 고요함을 잊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격려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 전체를 지켜주길 간절히 원한다”라고 기도

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를 주제로 설교한 김홍종 목사(더온누리교회 담임목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며, 그 결실에 이르러서 필요한 봄비가 내려야 할 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더욱 은혜 구하

기를 바란다”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 특별히 봄비를 내려주시는 근원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주대학교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예배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이날 설교 말씀을 통해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새기며, 모두의 발전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따뜻한 박수와 함께 마무리되었다.

|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미디어센터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권수태
주 간 | 최소담
편집장 | 전지은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e-ISSN 3022-8212

알고 쓰는 한자어



(사진: 전지은 기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어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는 흔히 쓰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뜻을 몰으면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피로연’이라는 말인데요, ‘피로연’이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 어떤 장면이 그려질 것인데 그걸 왜 피로연이라고 부르냐고 물어오면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피로연(披露宴)은 열다 피(披), 드러낼 로(露), 잔치 연(宴)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열어서[披] 기쁜 일을 드러내는[露] 잔치[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말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사용하는 두 예는 우리가 한자어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 겪는 우리 언어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자와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언어생활은 표현과 이해의 측면에서 보다 정확하고, 그래서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와 한자어에는 동아시아의 오랜 문화와 삶에 대한 생각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문적 소양을 키워 우리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쓰는 한자어’라는 연재를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Q3. 현대에는 한자를 접할 기회가 적은 독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한자가 생소한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3. 어떤 언어든 그것을 잘 하려면 자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한자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 한자로 된 말이 생소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언어생활 가운데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자주 조명되는 문해력 문제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쉽고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한자는 제2외국어가 아닙니다. 우리 언어생활의 역사에서 볼 때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소양은 우리의 언어생활을 보다 세련되고 풍부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입니다. 이 점을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Q4.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동안 기고문을 함께하게 될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4.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자, 한자어는 우리 말글살이를 위한 매우 소중한 도구입니다. 동아시아적 견지에서도, 한국을 찾는 많은 유학생들을 위한 우리말 교육에서도, 요즘 더욱 핫해진 K-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에서도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지면과 시간 관계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테지만, 이 연재를 통해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나’의 언어생활과 ‘나’의 세상 보기에 재미나고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맛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염치(廉恥)와 파렴치(破廉恥)

‘체면(體面)이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함’을 가리키는 말로 ‘파렴치(破廉恥)’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대로 풀이하면서 뜻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글자 ‘파(破)’는 돌을 뜻하는 ‘석(石)’과 발음 표시[피→파]이자 가죽옷을 뜻하는 ‘피(皮)’가 결합된 글자로 ‘가죽옷을 망가뜨리다, 훼손시키다’라는 데서 ‘깨뜨리다, 부수다’의 뜻을 가지게 된 글자입니다. 두 번째 글자 ‘염(廉)’은 ‘청렴하다[예]청렴결백(淸廉潔白)’, ‘값싸다[예]저렴(低廉)’ 등 여러 뜻으로 사용되는 글자인데, ‘파렴치(破廉恥)’에서는 ‘살피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글자인 ‘치(恥)’는 귀의 상형인 ‘이(耳)’와 심장의 상형인 ‘심(心)’이 결합한 글자로 ‘(부끄러운 무언가를) 듣고 드는 마음’에서 ‘부끄럽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글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염치(廉恥)’는 ‘자신의 행위나 처신이 부끄럽지 않은가 살피본다’는 뜻이고, ‘파렴치(破廉恥)’는 그런 ‘염치를 깨뜨린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은 파렴치(破廉恥)에 ‘사내, 놈’을 뜻하는 ‘한(漢)’을 붙여 파렴치한(破廉恥漢)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선비의 자질을 묻는 제자 자공(子貢)에게 선비의 첫 번째 자질로 “염치를 알고서 자기 몸가짐을 단속하는”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선비들은 사람이 금수(禽獸)와 다른 것은 예의(禮義)와 염치(廉恥)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는데,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은 “아, 세상 사람들 중에는 혹 예의(禮義)와 염치(廉恥)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 작은 이익을 보면 서로 아귀다툼하고 심지어 서로 해치는 이들도 있으니, 저들은 참으로 겉모습은 사람 꼴을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치의 중요성은 전통시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시대에 동떨어진 줄 알았던 이 염치(廉恥)가 새로운 민주적 가치를 확립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른바 K-방역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K-방역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전 세계의 모범이 된 것은 ‘나 때문에 남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염치(廉恥)에 기반하여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 타인의 피해 여부는 돌아보지 않았던 서구식 민주 의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또 지난 12월에는 염치(廉恥)를 알고 시비(是非)를 따질 줄 아는 사람들이 헛된 망상에 빠져 불법 계엄을 자행했던 파렴치한(破廉恥漢)들을 권력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파렴치한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금수와 같은 짓을 벌이고 있지만, 저들의 파렴치한 행위들은 염치를 아는 이 땅의 민초들에 의해 역사의 반면교사(反面教師)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염치(廉恥)와 파렴치(破廉恥)란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고 혹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나 살펴보는, 염치(廉恥)를 아는 마음이야말로 나를 넘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 배려와 온기가 작동하는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귀중한 실천적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국 하북대학교 기고문

해외학교현장실무실습



송다현(수학교육과 202244008)

2주 동안의 짧지만 깊이 있는 시간. 중국 하북대학교에서의 해외학교현장실무실습은 나에게 ‘교육’이란 단어의 새로운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번 실습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중국 대학생들 3~4명과 한국인 대학생 2명이 조를 이루어,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동시에 그 친구에게 중국어를 배우는 ‘언어 교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의 수업은 다소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진심 어린 태도는 금세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단순한 수업을 넘어서 함께 밥도 먹고 쇼핑도 하며 중국의 문화, 가치관, 생활 습관까지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 마음을 조금 더 잘 전달하고 싶어 언어를 배우려 노력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이중의 역할은 내게 ‘교육자’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실습 기간에는 하북대학교 교내와 인근 유적지도 견학하며 중국의 전통문화와 역사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다. 실습을 하며 이루어진 많은 활동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비빔밥과 김밥 만들기 활동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한국의 대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며 한국 문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중국 친구들의 반응도 무척 뜨거웠다. 조별 활동 시간은 언제나 유쾌하며 따뜻했고, 언어와 국적은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은 통했다.

이번 실습을 통해 ‘교사’라는 직업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다.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마음을 잊지 않고,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2주간의 실습이 끝난 지금, 마음속에 남은 건 아쉬움보다 감사함이다. 함께했던 모든 중국 친구들과 동료 실습생들, 그리고 열 한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신 유평수 지도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음번 누군가에게도 이 귀중한 경험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谢谢(씨에씨에), 河北大学(허베이따쉼)!”

로컬창업의 시대, 로컬창업으로 그리는 나의 세상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부교수 김시열

로컬창업.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다. 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물어보면 정확한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마 선뜻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사회에서 로컬창업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이다. 즉, 현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 보니 현재는 다양한 관점에서 로컬창업을 바라보며 각자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대학교는 오랜 기간 창업에 강점을 지닌 대학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을 통해 그간 깊이 다루지 않았던 로컬창업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로컬창업이라고 하면 작은 규모, 지역 특산물 활용, 지역 발전 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모두 맞는 말이다. 우리 지역의 장소적 가치를 담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모두 로컬창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역의 자원, 발전, 연계, 그리고 사업화와 관련된 연구개발(R&D)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개발이라 하면 기술개발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법적인 체계도 기술개발을 전제로 연구개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런데 로컬창업 역시 기술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그 모습은 다르지만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도출까지 상당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연구개발이 아닌 다른 용어로 지칭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를 ‘소프트 연구개발(SOFT R&D)’라고 부른다. 기술적 배경의 연구개발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본질은 동일하지만, 기존 인식의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로컬창업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창업 형태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로컬창업은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한다. 지역의 유명한 맛집,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 관광 기획 기업 등이 모두 로컬창업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전주의 로컬창업 기업인 ‘로컬웍스’는 위커비 브랜드를 통해 지역성 기반의 차별화된 벌꿀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지리산의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양봉 기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양봉농가 꿀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고자 창업한 이 기업은 경남 산청 지리산 일대 꿀에 천연 재료를 블렌딩하여 기존과 다른 다양한 맛의 제품을 선보인다. 사용성 개선과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공략하며 현재 전주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창업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 다른 전주의 로컬창업 기업인 ‘프롬하어’는 무형유산 브랜딩 에이전시로, 무형유산의 가치와 가능성을 지속하고자 전문 무형유산 큐레이터들이 창업한 기업이다. 우리나라 고유 정신을 지닌 장인과 공예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작품을 일상에 연결하여 지역과 전통을 담은 스토리로 브랜드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다른 지역의 로컬창업 기업의 예로

는 제주의 카카오패밀리를 들 수 있다. 이 기업은 카카오와 견과류 전문 그로서리 숍인 ‘코코하’를 운영하고 있다. 최상급 카카오와 로스팅한 고품질 견과류로 너이버터, 카라멜, 생초콜릿 등을 제공하며, 세화리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로컬창업 기업들과 연대하여 ‘세화리 세계일주’ 같은 지역 관광 상품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로컬창업을 통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각자의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로컬창업이 무엇인지 느낌이 오는가?

살펴본 몇 가지 사례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들 기업의 핵심적인 공통점을 찾아보자. 아마 누구나 동일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을 하였고, 창업이라는 수단은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창업하는 선택을 한 이유는 지속가능성 때문이다. 기업 활동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이익은 다시 지역 문제 해결에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컬창업이 현재 지역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전주대학교는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을 바탕으로 로컬창업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컬창업 융합전공’과 ‘로컬창업컨설팅 마이크로전공’을 신설하여 학생들이 로컬창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부족한 부분은 로컬벤처학부의 관련 전공과목을 개방하여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필요한 전문 역량을 선택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전공을 활용한 로컬창업 실무 역량을 높이하고자 하고 있다. 로컬창업의 흐름에 맞추어 기초에서 매우 전문적인 범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로컬창업 캠프’와 ‘로컬아이템 아이디어 옥션’ 등을 통해 로컬아이디어 발굴 능력을 확보하고, ‘로컬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실제 로컬창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로컬창업 동아리는 전주시 웨딩거리와 동근숲 조합건물, 그리고 남부시장 모이장에 거점공간을 두고 각자 아이템 특성에 맞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좋은 아이디어는 차고처럼 아늑하고 교류가 있는 공간에서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동아리 활동은 로컬창업 분야의 최고 경험을 보유한 엑셀러레이팅 기업인 크립톤에서 지역의 여러 로컬창업자들과 연계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다양한 로컬창업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성수동과 제주도로 로컬창업 탐방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연말에는 각자 개발한 로컬창업 아이템으로 웨딩거리 등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어 성과를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중 눈에 띄는 동아리 팀은 실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체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학교가 책임지고 역량 있는 로컬창업자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소감 인터뷰

백미현(로컬벤처학부 2학년)

“로컬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 자원의 숨은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전공 수업에서 배운 기획을 실제 콘텐츠 제작으로 연결하면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백토리’ 프로젝트로 전주를 배경으로 한 만화와 굿즈, 관광상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청년 창작자들과 협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박경훈(로컬벤처학부 1학년)

“동아리에서 선배들과 함께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장인과 협업한 로컬 스트리트 브랜드 ‘온새’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활동이 전주의 전통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준민(패션산업학과 4학년)

“패션 전공에서 배운 이론을 동아리 활동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로컬창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편집하다’라는 브랜드로 전주의 전통을 현대적 워크웨어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팝업스토어와 로컬 협업을 통해 한복이 일상 속에서 살아 있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를 공부하면서 어떤 꿈을 품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중에서도 창업이라는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세상을 그려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학교와 함께 그 고민을 풀어나갔으면 한다. 이제 시작하는 로컬창업에 대한 노력들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어, 우리 전주대학교가 전북 지역에서 로컬창업의 성지(聖地)로 불리는 날을 기대해 본다.

“오늘, 인생을 건 베팅이 시작된다” ‘All or Nothing’ 성황리에 막 내려

지난 9월 11일(목) 개최한 연합축제 “All or Nothing”이 ‘오늘, 인생을 건 베팅이 시작된다’를 슬로건아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호텔 객실에서 비밀 초대장을 받아 참여한다는 이색 설정은 학우들의 뜨거운 참여를 이끌어냈다.

오전 10시부터 학생회관 일대에서는 플리마켓과 다양한 주간부스가 운영됐다. 운영본부, 환전소, 인스타 소개팅, 인생네컷 ‘Lucky Frame’, 게임부스 등이 준비되어 활기를 더했다.

특히 각 단과대학이 마련한 게임부스는 큰 인기를 끌었다. 경영대학의 ‘블루잭(블랙잭)’, 사범대학의 ‘pick or die(카드게임)’, 인문콘텐츠대학의 ‘결판롤렛(러시아롤렛)’, 의과학대학의 ‘인간슬롯(인간슬롯)’, 총학생회의 ‘G1(레이싱)’은 참가자들에게 행운의 화폐와 스탬프를 제공하며 축제의 재미를 증폭시켰다. 경품으로는 폴리오 종아리 마사지 V3, 와이드무빙뷰 화이트에디션 삼텐바이미 세트, 루이비통 엔벨로프 비즈니스 카드 홀더 모노그램이 준비됐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UCDC, 맨인블랙, 노래방, 은하수 등 교내 동아리 공연이 이어져 본격적인 무대를 달궜다. 이어 6시 30분부터는 ‘결카운트다운(K-POP 경연)’이 열렸다. 총 5팀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관객들의 응원 속에 금상 30만 원, 은상 20만 원, 동상 10만 원이 수여됐다.

축제의 클라이맥스는 아티스트 라인업이 장식했다. JAEHA, 황세현, Paul Blanco, Skinny Brown, Gist, 엽파가 무대에 올라 힙합과 R&B 공연을 선보이며 전주대 학생회관과 노천극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공연과 함께 이어진 ‘결 시즌즈’ 무대와 추첨 이벤트는 관객들의 함성을 이끌며 축제의 열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올해 연합축제는 단순한 즐길 거리를 넘어, ‘행운과 베팅’이라는 참신한 콘셉트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축제를 선보였다. 주간과 야간을 아우른 부스, 고가의 경품,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그리고 유명 아티스트 공연까지 모두 어우러지며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했다.

참여 학우들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 화폐와 경품으로 이어지니 더 몰입됐다. 작은 미션을 깨면서 행운을 쌓는 재미가 있었다.”, “친구들이 무대에서 땀 흘리며 춤추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같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주대학교는 이번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다.



기사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사진 |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디자인 | 오수현 기자(dhtngus0227@jj.ac.kr)

제8회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책 축제

전주 독서 대전



제8회 전주독서대전이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대에서 열렸다. 전주시는 책장을 넘기는 순간의 즐거움과 성장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독서대전의 주제를 ‘넘기는 순간’으로 선정했다. 현장에서는 주제를 반영한 참여형 전시와 작가 강연, 북마켓, 독서 올림픽,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독서대전을 찾은 시민들에게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작가와 만나는 순간’ 코너는 초청 강연 형식으로,

작가와 독자가 직접 소통하며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질문을 나누는 자리다. △차인표 작가의 ‘그의 하루에 생긴 세 가지 습관’ △고은지 작가의 ‘힐링, 마음’ △이호 작가의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최은영 작가의 ‘변화하고 성장하는 글쓰기’가 진행됐으며, 사전에 모든 프로그램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 올해의 책’ 코너에서는 강경수, 이희영, 김소영, 김근혜 작가가 강연을 맡았고, ‘시와 만나는 순간’ 코너에서는 안도현, 유희경, 유강희 시인이 무대에 올라 독자들과 교감했다.

한벽문화관에서는 전국 29개의 서점과 출판사가 북마켓을 운영하고, 7개의 독서단체가 체험 부스를 열었다. 이 가운데 우리 대학 문헌정보학과도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기획을 맡은 임민영 문헌정보학과 학회장은 “후우링 만들기 부스를 통해 일상의 작은 율림이 독서대전의 주제인 ‘넘기는 순간’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여는 경험이 되길 바랐다”라며, “부스를 진행하며 책과 도서관을 더 친

근하게 느낄 수 있어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독서대전을 찾은 다양한 세대에 맞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어린이 독후활동 대회 △청년 독서 워크숍 △청년 독서 토론을 통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수요에 맞는 행사를 진행했으며, 가족 단위 방문자를 위해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 독서 골든벨도 마련됐다. 이같은 다양한 전시와 공연, 여행 및 탐방 프로그램, 체험형 게임까지 더해져 행사는 더욱 풍성하게 꾸러졌다.

자녀들과 함께 현장을 찾은 한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전주독서대전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를 만들며, 독서·출판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장이 되었다. 올해 전주독서대전도 ‘넘기는 순간’이라는 주제를 통해 책이 주는 율림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기사 | 이동현 기자(Ekaren33@jj.ac.kr)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청년들의 문화생활 문턱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청문패)’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에게 공연, 전시 등의 관람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품격 있는 문화시민이자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차원의 사업이다.

지원 장르에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합창, 국악 등 다양한 공연예술과 더불어 음악 콘서트, 페스티벌, 미술·공예 전시, 애니메이션 전시 등까지 포함된다. 단, 토크 콘서트나 팬 미팅, 종교 행사, 아동·가족 장르 공연, 영화제, 관광 축제와 같은 일부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예술적 향유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올해 패스의 지원 대상은 2006년생으로, 총 16만 명의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지난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으며, 지난 7월 7일부터 2차 접수가 시작됐다. 2차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지역별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차 발급 이후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아 회수되면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지급되는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이다. 기본적으로 국비 10만 원은 전국 모든 청년에게 똑같이 제공되며, 지자체의 추가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최대 5만 원이 더 지급된다. 이 때문에 지역별 지원금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성남시·안산시, 전북 전주시는 10만 원까지, 그 외 지역 청년들은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는 협력 예매처인 NOL 티켓이나 YES24 티켓에 가입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실제 예매와 연동하기 위함이다. 누리집은 신청부터 이용까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후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이용자가 선택한 협력 예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지원한다.

패스는 발급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관람할 공연이나 전시를 선택한 후 예매 과정에서 포인트·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면 된다. 장르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매 전 반드시 관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은 단순 신청 창구를 넘어 청년 문화 생활을 확장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공연 정보와 더불어 패스 연계 이벤트가 공개되며, 이용자 후기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 참여자들은 자신이 본 공연·전시 감상담을 남기거나 추천 게시글을 공유할 수 있다.

후기 게시판에 올라온 청년문화예술패스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뮤지컬·페스티벌·미술품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많은 이용자가 발급 절차의 간편함과 예매 과정의 직관성도 장점으로 꼽았다. 기존 지원 제도와 달리 이용 방법이 단순해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다. “휴대전화 입력만으로 손쉽게 발급됐다”, “예매 창에서 바로 적용돼 편리했다”라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많은 청년이 꼽은 가장 긍정적인 평가는 ‘가격의 장벽’을 넘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일부 후기는 “그동안 비용이 부담돼 망설였던 뮤지컬과 전시를 처음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다”라며 생생한 감상을 전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공연예술을 접하기 어려웠던 스무 살 청년에게 청문패는 한 줄기 희망 같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후기를 통해 드러나는 공통된 바람은 제도의 장기적 운영이다. 대부분 청년이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지속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더 많은 또래가 혜택을 누리길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반응은 청년문화예술패스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청년 세대의 문화 참여를 확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제한됐던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이 공연장과 전시장을 새로운 일상의 공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청년이 스스로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과 호응은 이 제도가 단기간의 정책이 아니라, 청년 문화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청년 세대의 문화 향유권을 넓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사 | 김주는 기자(202315018@jj.ac.kr)

디자인 | 김예진 기자(ye_yejin@jj.ac.kr)

<전주대학교 2025-2학기 채플 안내>

우리 전주대학교에서는‘기독교 정신 구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재학생들이 채플을 4회 이수해야 하는 교과과정이 있으며, 이를 위해 4가지 채플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채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흥미로운 내용을 구성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각 채플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성품채플, 소그룹채플

성품채플, 소그룹채플은 한 학기에 7개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1년에 총 14개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건학이념을 구현한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과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고, 학생들에게 내면세계의 질서와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신앙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이퍼채플

2025학년도 2학기에는 카이퍼 교육철학의 핵심을 구현하는 ‘카이퍼 채플’이 신설되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카이퍼 채플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명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며, 강의형과 비교과 활동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 진행된다. 이로써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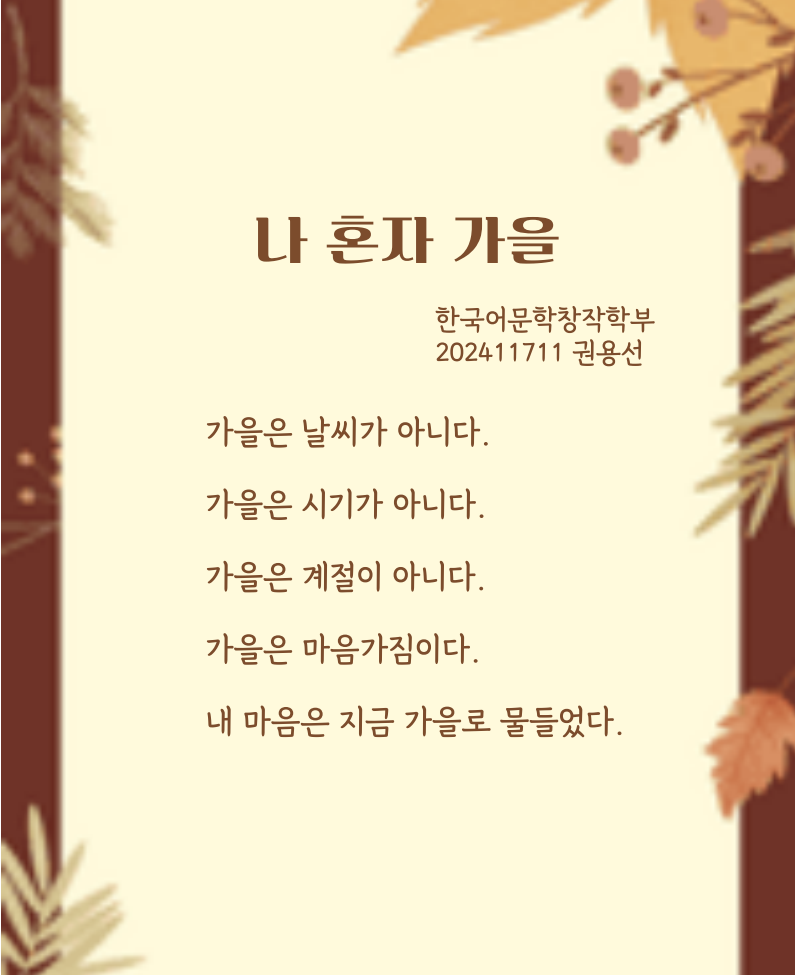
▶세계관채플

세계관채플은 성경적 세계관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의와 질의응답을 병행하여 창조 질서와 신앙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주제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기독교적 통찰력을 기른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과 학문 속에서 신앙을 적용하며 균형 잡힌 세계관을 확립하도록 이끌고 있다.

▶부흥채플

부흥채플은 신자 전용 채플로 학생들의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대 사회 속 젊은 기독교 청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히 이번 학기는 ‘영화로 보는 성경’이라는 주제로 영상 매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흥미로운 주제들로 준비하였다. 이는 신앙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공동체 내에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채플이다.

선교지원실 이유민 행정원



<의심과 믿음의 갈림길>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봉사처장)

의심은 마음을 둘로 나누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의심하는 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 불안의 원인은 마음의 갈라짐에 있습니다. 의심은 마음을 베어 나누는 칼입니다.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뱀의 혀처럼 마음이 갈라져서 두 마음을 가집니다. “두 마음”(διψυχος)은 정신적인 활동의 주체가 둘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둘이면 관심이 갈라지고 뜻이 갈라지고 방향이 갈라지고 인생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에는 늘 갈등과 대립이 생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구성원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듯이, 한 사람의 내면에도 두 마음이 있으면 자아의 분열과 불화가 생깁니다. 심하면 이중인격 혹은 다중인격 증상도 보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동자는 떨립니다. 표정도 불안하고 몸도 흔들리고 손도 떨립니다. 이처럼 의심이 한 개인의 기질을 통째로 바꿉니다.

맨톤은 “위선자”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위선자”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에 의하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도 두 마음의 품은 자입니다. 기준이 둘이면 동일한 사물과 사안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판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하는 가증한 자입니다. 기준과 판단의 인간적인 변덕과 관련하여 지혜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

합니다(잠20:23). 하나님도 경외하고 다른 신들도 경외하는 사람 또한 마음이 둘로 갈라진 자입니다.

둘로 갈라진 마음의 상태는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입니다(계3:15). 그러나 야고보의 문맥에 가장 적합한 “두 마음”의 의미는 “다양하고 불확실한 움직임과 더불어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이며 “이 때는 추정의 파고로 부풀어 올랐다가 저 때는 절망의 심연으로 곤두박질치고 하나님의 받아들이 주심에 대해 희망과 두려움이 갈라지는” 마음을 뜻한다고 맨톤은 말합니다. 전심으로 신뢰해도 부작용이 없고 배신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인생의 뿌리와 토대를 둔다면 이 세상이 통째로 바람이 되어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은 세상의 불안하고 변동적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불안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부자와 빈자에 대한 야고보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립니다(약4:8).

교수칼럼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영국 토트네스에서 배운 것 - 프로젝트 기반 공동체를 만들지 말고, 공동체 기반 프로젝트를 하라-



이재민 교수
(미래융합대학 창업경영금융학과 교수)

2019년 여름, 나는 영국 데번주의 작은 마을 토트네스를 방문했다. 이 곳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 E.F. 슈마허의 이름을 딴 슈마허 대학이 있고, 세계적인 전환마을 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당시 나는 현재 ‘돼지카드’로 통하는 전주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상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평화동 지역에서 공동체화폐 ‘꽃전’ 리빙랩을 설계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연구자로서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경제적 유인만으로 유통시키려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설계하려 고심하고 있었다.

-토트네스에서 만난 세 가지 진실

10일간의 체류에서 나는 세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첫째, 일단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행하면서 다듬어 간다. 토트네스 사람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며 현실에 맞게 모습을 갖추어 갔다.

둘째, 일을 크게 하는 데 의미를 두지 말고, 작은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영국 지역화폐에 큰 영감을 준 토트네스 파운드는 할인 혜택도 없었고 지류로서 사용하기 불편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 상품을 10% 더 구입하자’는 로컬푸드운동의 상징으로 기꺼이 이 불편함을 감수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아쉽게도 그해 여름 폐화되었다. 그들은 목표와 수단을 정확하게 구분하였다. 10년이나 사용하던 지역화폐를 목표가 달성되고 나니 과감히 폐화시켰다. 수단이 목적을 잠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셋째, 프로젝트의 성패는 끝난 후 참여자들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는가에 있다. 가게마다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게시판이 있고, 강가 벤치에는 “누군가의 노을을 즐기던 추억의 장소”라는 작은 명판도 붙어 있다. 빈 공간에 설치된 작은 가든들에는 “필요한 분은 끊어가도 됩니다”라고 써 있다. 누군지도 모를 이웃들과 그들은 많은 관계로 얽혀져 있는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에게 관계는 프로젝트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4H를 통한 전인교육

슈마허 대학은 Head, Hand, Heart, Harmony의 4H를 추구하며, 머리만 굴게 만드는 대학교육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학생들은 직접 농사를 짓고, 채소를 기르고, 채식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배운다. 모든 프로젝트는 팀으로 진행된다. 학장은 “강의식 교육은 없다. 학생들이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막혀서 오면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을 뿐”이라고 했다.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돌아오자 2020년 신설된 창업경영금융학과에서 새로 자리를 잡았다. 대안대학인 슈마허대학을 머릿속에 그리며 지난 5년간 학생들과 함께 학교밖에서 디자인씽킹 기반 리빙랩을 진행했다.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점차 대학의 역할과 교수의 역할에 대해 어렵게 그 의미를 깨달았다.

-지역에서 피어난 작은 변화들

2019년 설계된 공동체 화폐 ‘꽃전’은 지금도 전주 평화동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2020년 학생들과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공동체화폐 ‘꽃전’ 대출사업 ‘모두의 공간’을 설계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무담보, 무이자, 무추심이라는 3무 대출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게 될까요? 그것도 취약계층에?” 8개월 간의 실험은 99% 반환이란 성공으로 나타났고, 실험중양회는 선 듯 1,000만원을 지원했다. ‘모두의 공간’은 지금도 금융취약계층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능력이 없던 전주시자활센터의 청년자립도전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 리빙랩 프로젝트로 문을 연 ‘콩닥콩닥’은 스스로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3호점까지 늘었다. ‘꽃전’리빙랩의 경험을 살려 부여 지역사랑상품권 굿즈프레미 재설계를 위한 리빙랩은 코로나 속에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1년간 진행되었다. 다음해 전국 최우수 지역화폐로 선정되어 대통령 상을 받았다. 현재 부여군에서는 충남 다른 지자체 비해 1인당 2.5나 더 많은 지역화폐가 유통된다. 전주팔복동 도시재생지역 리빙랩 프로젝트, 임실 치즈마을 살리기 프로젝트, 진안군 어르신 공유보조은행기 설계 리빙랩 프로젝트 등 학생들과 지역에서 진행된 리빙랩은 더 많다.

이 모든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지역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었다. 부여에서는 1년에 걸쳐 농민, 전통시장, 대형마트, 하나로마트가 모두 합의하는 기다림이 필요했다. 우리에게선 완벽한 시스템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요하다.

-AI 시대, 교육의 새로운 역할

슈마허 대학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지식, 직관 및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것이었고, 이 발견을 곧바로 현장에서 실험해 나가는 것이었다. AI 시대, 대학교수의 지식은 한낱 티끌이 되었다. 교수가 강의할 때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되묻고 확인하며 더 넓게 지평을 넓힌다. 학생은 손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은 더 이상 상아탑의 상징도 아니고 교수의 권위도 아니다. AI시대 교수의 역할은 무엇인가?

-슈마허 대학이 남긴 유산

슈마허 대학은 매주 수요일 밤마다 세계적 석학을 모셔 “earth talk”라는 열린 특강을 진행했다. 지금도 유튜브에는 그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다. 생태적 가치를 외치면서 채식주의를 추구하던 슈마허 대학은 아이러니 하게도 코로나19의 타격으로 2024년 9월 정식으로 문을 닫았다. 30년간 전 세계 생태주의자들의 성지 역할을 했던 곳이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는 석유문명에 중독되었다”고 토트네스 사람들은 말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성장과 효율성에만 매몰된 교육, 경쟁과 성취에만 집중하는 대학 문화 말이다.

누가 슈마허대학을 역사 속으로 물어버렸는가? 기후변화가 현실이 된 지금,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할까? 슈마허대학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추구했던 지속가능하고 관계 중심적인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이다.

토트네스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것이다. 변화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지속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단해야 한다는 것. 다시 가볼 수 없는 그곳, 슈마허대학에 다시 가 보고 싶다!



안전한 세상 밖으로 한 걸음

제목: 트루먼 쇼
감독: 피터 위어
장르: 코미디
러닝타임: 103분

내가 알던 모든 세계가 거짓이라면 어떨까?

가족, 친구는 물론, 내가 사는 공간 자체가 거짓이라면. 모두가 나를 알고 모두가 나를 모른 척하는 세상.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 트루먼은 평생을 거짓 세상에서 살아온 인물이다. ‘트루먼 쇼’는 1998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로, 당대 최고의 배우 짐 캐리가 주인공을 맡았다. 수많은 사람의 인생 영화로 꼽히는 이 영화는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

영화 속에는 호화스러운 대인원의 출연진도, 입이 떡 벌어지는 아름다운 로케이션도 없다. 그러나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건 언제나 영화의 메시지다. 태어날 때부터 살아온 세상이 ‘트루먼 쇼’의 촬영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트루먼은 바다 너머의 진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첫사랑을 다시 만나기 위해, 혹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그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트라우마를 마주하기도 하며 만신창이가 된 트루먼은 결국 세상의 끝에 닿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쇼의 제작자 크리스토프는 트루먼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완벽하고 안전하게 만든 세상. 그 세상 안에서 트루먼은 지금까지 평탄한 삶을 살았다. 현실에는 절망과 부조리, 경쟁 등 치열한 고난이 가득하지만, 자식처럼 여긴 트루먼을 위해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자신하는 크리스토프의 모습은 마치 창조주처럼 보이기도 한다.

촬영장 밖으로 연결된 출구를 찾아낸 트루먼에게 크리스토프는 말한다. “넌 나가지 못할 거야. 넌 한 번도 세상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 트루먼의 일생을 TV로 지켜본 시청자도 숨을 죽이고 화면에 집중한다. 모두가 트루먼의 선택에 주목하는 순간, 트루먼은 일상의 여느 날처럼 시청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출구를 나선다. “뭣 볼지 모르니까 미리 인사하죠. 굿 애프터noon, 굿 이브닝, 굿 나잇.” ‘트루먼 쇼’가 사랑받는 이유는 엔딩 속 트루먼의 선택 때문이다.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과연 나도 것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누구나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한다. 다양한 상황과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다. 당장 대학에 다니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하루에 몇 번씩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 사람마다 결정을 내리는 기준은 다르다. 안전하고 보장된 결과를 원한다면 익히 알고 있는 방향을 택할 것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난관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미지의 세상을 택하게 될 것이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맞는 방식이 다르므로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도전하고 싶어도 용기가 안 나서 망설이는 사람이라면, 영화 속 트루먼처럼 여실히 인사를 건네고 한 걸음을 내딛어보자.

문을 나선 트루먼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진정한 자신의 삶을 되찾고 주체적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안전하고 익숙한 세상을 그리워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대학생이라면 특히 그렇다. 20대의 한 자락, 트루먼처럼 마음껏 부딪히고 넘어질 이들에게 응원을 건넨다.

기사 |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디자인 |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기자칼럼

에겐남, 테토녀? 밈으로 발견하는 나



김주은 기자
(202315018@jj.ac.kr)

“빠르게 알아보는 에겐남 특징”, “테토녀가 끌리는 이유” 등 최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신조어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크게 유행했던 MBTI 성격유형 이후로 ‘에겐, 테토’ 밈이 새롭게 떠오르는 화제다.

‘에겐’과 ‘테토’는 성호르몬의 명칭에서 유래한 단어다. ‘에겐’은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Estrogen)의 줄임말로, 감성적 반응과 애착, 공감 능력이 강한 유형을 가리킨다. ‘테토’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에서 유래하여 주도적이고 솔직하며 통솔력과 경쟁심이 강한 유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조어는 의학 용어에서 유래했으나 현재 대중적으로는 실제 개개인의 호르몬 수치와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신조어들의 활용은 단순한 성별 구분이나 생물학적 특성을 넘어, 개인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러한 밈은 SNS를 통한 이상형 담론에서 시작됐다. 성격, 외모, 라이프 스타일, 취향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성별 유형을 ‘에겐남’, ‘테토남’, ‘에겐녀’, ‘테토녀’의 네 가지로 나누어 부르기 시작한 것이 퍼져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예를 들어 ‘에겐남’은 ‘에스트로겐 남성’의 준말로 섬세하고 다정하며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남성을 가리킨다. 반대로 ‘테토녀’는 ‘테스토스테론 여성’으로, 자기주장이 뚜렷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를 이끄는 모습을 보이는 성취 지향적 여성상을 일컫는다. 또한 한 사람의 특성이 어느 한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만큼, ‘에테남’(에겐+테토 남성), ‘테겐녀’(테토+에겐 여성)와 같은 방식으로 복합적인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조어는 성호르몬을 뜻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기존의 성별 이미지에서 벗어난 개인의 성향을 자유롭게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사회 규범과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며 ‘여성스러운 남자’나 ‘남성스러운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개선됐다. 과거에는 이들을 전통적 젠더 규범에서 벗어나는 소수 개인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식한 반면, ‘에겐남’, ‘테토녀’는 성격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 인식되어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난 유형이라는 편견을 줄였다. 이런 점에서 ‘에

겐, 테토’는 성별과 성격유형을 묶어 네 가지로 분류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개인의 성향을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든 셈이다. 나아가 모든 사람은 ‘에겐’의 특성과 ‘테토’의 특성을 조금씩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성격유형 분류가 그렇듯, ‘에겐, 테토’ 밈이 놀이와 자기 표현을 넘어서 과열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밈이 지나치고 무분별한 유형화로 이어진다면 앞서 살펴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을 단순화된 프레임에 가두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에겐, 테토’ 밈의 유행이 시작된 SNS와 짧은 영상 콘텐츠의 특성상 빠른 전파와 재생산 과정에서 단순화가 이뤄지기 쉽다. 따라서 과한 몰입을 경계하고 건강하게 문화를 즐기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사람이 가진 여러 특성을 ‘에겐’, ‘테토’ 등 짧은 성별 이미지로 표현하다 보니 기존에 사용되는 언어가 밈으로 대체되는 현상도 보인다. 예를 들어 ‘부드럽고 유하게 보이지만 속은 강하고 단단한 사람’을 의미하는 ‘외유내강’이라는 단어가 이미 있음에도 ‘겉에겐 속테토’라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신조어의 생성과 사용은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이지만, 밈 중심의 표현은 사고와 언어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우려도 있다. 밈에서 파생된 신조어를 편리한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향유자들이 밈을 벗어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상형 담론에서 시작된 ‘에겐, 테토’ 밈은 새로운 유형론 놀이 문화이자 자기표현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독특한 유형론을 즐기면서 사람을 유형에 가두지 않고 바라본다면 자신과 타인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도 몰랐던 ‘에겐’과 ‘테토’를 발견하며 이 밈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위고비, 사회에 숨겨진 외모 강박을 드러낸다



이동현 기자
(ekaren33@jj.ac.kr)

최근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위고비’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이다. 이 약물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포도당 생성을 감소시키며,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작용을 통해 체내 대사를 조절한다. 처음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되다가 체중 감량 효과가 발견되어 현재는 비만치료제로 확장되었다. 의사의 적절한 처방과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비만 환자에게 사용될 경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 체중 또는 저체중인 사람들이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오남용한다는 점이다. 위고비의 치료 대상자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 하지만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어야 할 약물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거나, 온라인 불법 거래와 해외 직구를 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약값 부담으로 인해 정해진 증량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고용량의 약물을 투여하다가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SNS에서는 위고비를 통해 한 달 만에 10kg를 감량하는 등의 후기들이 다수 공유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위고비 열풍이 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다이어트라는 약효 때문만은 아니다. SNS와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는 끊임없이 날씬한 외모에 대한 환상과 집착을 심어준다. 날씬함이 곧 자기관리이자 매력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개인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사람의 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는 첫인상에 지나치게 중독된다. 날씬한 외모가 능력, 성실함, 자기관리까지 보장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이 후광 효과가 위고비와 같은 약물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겉모습에 대한 강박은 개인의 건강보다 사회의 외모 기준에 시선을 집중하게 만든다.

한때 ‘기적의 약’으로 불렸던 약물들의 실패 사례도 존재한다. 1950~60년대 탈리도마이드는 임신부 입덧 완화제로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수많은 기형아를 낳게 했다. 1990년대 ‘웬웬 다이어트약’은 체중 감량 효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심장판막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또한 관절염 약물 바이옥스는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대규모 리콜 사례를 남겼다. 위고비 역시 10년, 20년 뒤 장기적 관점에서 부작용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위고비 열풍은 사회가 만든 외모 강박과 통념에 맞닿아 있다. 날씬함을 미의 기준으로 삼고, 비만을 자기관리의 실패로 낙인찍는 문화가 사람들을 약물에 의존하게 만든다. 외모에 대한 집착은 자존감 저하, 불안, 우울 증, 섭식 장애, 사회적 관계 단절 등 다양한 부작용도 낳고 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다양한 체형과 외모가 개성으로 존중받는 사회다. 약물에 기대는 단기적 해결보다는 사회가 만든 외모 강박과 통념을 되돌아보고, 개인의 건강과 자기 존중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Jeonju University’s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Reacquire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creditation

Jeonju University’s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cting President: Kwon Soo-tae) has once again proven its excellence in education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successfully reacquir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rom the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KABOTE) this year. This achievement also includes continued recognition by the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FOT), further solidifying the department’s status as a globally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The department had previously received both domestic and WFOT international accreditation during the last evaluation cycle. In its recent reaccreditation, the institution was recognized for its excellence across multiple areas, including a well-structured curriculum, the quality of clinical and field training, comprehensive programs aimed at strengthening student competencies, and active engagement with the local community.

Notably, the department continues to make strides in education, research, and global collaboration, playing a leading role in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professionals.

Professor Yuin Kyu, Head of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commented, “This reaccreditation goes beyond a mere formal evaluation—it is a clear affirmation that our educational philosophy and practices meet global standards. We will continue to pursue innovative education and research to ensure our students thrive on the international stage.”

Jeonju University’s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offers specialized educational programs that enhance students’ professional capabilities while actively engaging in partnerships with local communities and industries. The department also stands out in international conference participation, global exchange programs, and research in assistive and rehabilitation technologies, establishing itself as a “global hub for training top-tier occupational therapy professionals.”

articl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uptoillie20@jj.ac.kr)

Jeonju University’s College of Business successfully held the outcome presentation for the first cohort of its beSTAR for Financial Institutions program on Wednesday, September 3, at 4:00 p.m., Room 201 of Jayu Hall.

The beSTAR program is a tailored employment support initiative developed by the College of Business to prepare students for careers in the financial sector. Launched this year, the program aims to develop talent with the practical skills demanded by financial institutions. Designed for students aiming to enter the finance industry, it enhances local workforce competitiveness through hands-on training and direct industry connections.

Over the semester, students took part in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expert lectures and mentoring from finance professionals, finance certification study groups, mock TOEIC competitions, and personalized résumé and interview consulting visits to financial institutions.

At the presentation, students shared the results of their semester-long efforts, and top performers received awards. Many participants expressed high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noting it provided practical experience and skill-building opportunities often missing in traditional classroom settings.

Dean Kim Hyo-jin of the College of Business commented, “The beSTAR for Financial Institutions program is helping build a talent development ecosystem where universities and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collaborate. It not only enhances students’ abilities but also opens real opportunities for career growth.” She added, “We will continue expanding these programs to support students’ career planning and employment readiness.”

Looking ahead, the College of Business plans to continue running the beSTAR program into the second semester, with deeper collaborations with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training, such as joint projects and job-specific lectures tailored to the finance sector.

articl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uptoillie20@jj.ac.kr)

College of Medical Scienc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Successfully Hosts Seminar

Exploring New Avenues for Rehabilitation Therapy for North Korean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

Jeonju University (Acting President Kwon Soo-tae) successfully held the 3rd Jeonbuk Regional University Consortium Seminar under the theme “Opening the Path to Peace from Jeonbuk” on September 5 at the Recital Hall of the University’s College of Arts. The seminar aimed to explore new directions in rehabilitation therap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Co-hosted by Jeonju University and the South-North Disability Treatment Support Coalition, the event brought toge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as well as local community stakeholders.

The seminar featured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a range of topics, including physical therap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and South Korea, speech-language therapy across the peninsula, and the role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pecial congratulatory remarks were delivered by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Chung Dong-young and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im Yoon-duk, both of who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eace and cooperation.

A highlight of the seminar was a presentation by Professor Kim Eun-joo of Jeonju University’s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titled “The Current State of Occupational Therap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Professor Kim outlined the socio-cultural challenges faced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the limited access to rehabilitation services, and the pressing need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he stressed that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is not merely a matter of medical care—it is fundamentally a human rights issue tied to quality of life.” She further emphasized that meaningful change can only occur through the combined efforts of professional training and sustained international partnerships.

Through this seminar, Jeonju University has further solidified its academic and societal role as a hub for researc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habilitation therapy for the Korean peninsula. Centered around its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the university plans to strengthen both program specialization and global engagement to foster future occupational therapy professionals who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peace and human rights.

articl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uptoillie20@jj.ac.kr)

BTS Concert Generates 1 Trillion Won Impact…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Emerging as a New Growth Engine

Jeonju University (Acting President Kwon Soo-tae) has announced the launch of its “1,000-Won Breakfast” program, aimed at promoting student welfare and supporting healthy campus life. The initiative will run from September 16 to December 11, offering affordable and nutritious breakfasts to enrolled students.

Designed to address the high rate of breakfast skipp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program provides healthy, locally sourced meals at the symbolic price of just 1,000 KRW. The goal is to support students’ physical well-being and enhance academic performance by encouraging regular morning meals.

Participating students can enjoy a variety of simple yet satisfying breakfast options—including rice bowls, gimbap, burritos, and cup rice—at on-campus dining locations such as Choegodang Donkatsu, Ddeunddeun, Burger & Taco, and Starbaps. The program operates every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from 8:30 a.m. to 11:00 a.m.

Shin Sook-kyung, Director of the Student Career Development Office, stated, “We organized this initiative so that students, despite their busy schedules balancing academics and career preparation, can start their day with a balanced and nutritious meal.” She added, “We will continue to develop student-centered policies and expand welfare programs to improve campus life satisfaction.”

Jeonju University plans to further strengthen its commitment to student welfare through a wide range of ongoing and future support initiatives.

articl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uptoillie20@jj.ac.kr)

全州大学为外国留学生隆重举行学位授予仪式



全州大学于8月13日在星光中心温努里厅（스타센터 온누리홀）为2024学年度后期的外国留学生隆重举行了学位授予仪式。本期共有81名留学生圆满完成学业，获得学位，其中包括70名本科生、4名硕士研究生和7名博士研究生。

本次仪式由国际交流院主办，旨在庆祝留学生们学业有成，并祝福他们开启人生新篇章。除本校师生外，仪式还特别邀请了当地社区及志愿团体的代表出席，共同见证这一重要时刻。一个尤其感人的环节是，部分因故无法到场的毕业生海外家属，由当地市民代表代为出席并转达祝福，让毕业生们深切感受到了来自社区的温暖与关怀。

仪式流程包括毕业生代表发言、学位授予、嘉宾致辞和祝贺视频播放等环节。最后，全体教职员工为毕业生献上祝歌，将现场温馨感人的气氛推向了高潮。

毕业生代表，来自越南旅游经营学系的范文武（PHAM VAN VU）同学在发言中分享了他的喜悦与感悟。他表示：“初到韩国时，语言和文化的差异曾让我感到无所适从。但在教授和朋友们的热心帮助下，我成功克服了所有困难。在全州大学所学的知识与经验是我一生宝贵的财富，未来我希望能成为连接越南与韩国的桥梁。”

国际交流院院长、酒店经营系的沈永国（音译）教授在致辞中向毕业生们表示了热烈祝贺：“留学生们在陌生的国度克服困难，坚持不懈地完成学业，我们为你们今天的成就感到无比骄傲。全州大学将一如既往地为学生们提供支持，帮助大家安心求学，并期待你们将来在全球舞台上施展才华。”

此外，全州大学致力于为外国留学生提供多元化的教育项目，不仅开设了韩语和英语授课的专业课程，还设有进行语言研修的“韩国语学堂”。同时，学校通过涵盖从入学、在读到毕业、就业的“一站式支持体系”，为留学生的成长与发展提供了全方位的保障，助力他们在韩国乃至国际社会中实现自我价值。

全州大学与全北特别自治道经济通商振兴院就业中心签署合作协议

-积极支援外国留学生在地区扎根与就业，配合法务部“地区特化型签证”政策



全州大学（校长朴珍培）于3月28日与全北特别自治道经济通商振兴院就业中心（中心主任廉京亨，音译）签署业务协议（MOU），正式启动协作机制，旨在提升外国留学生的就业能力，支援其在全北地区的定居与发展。

此次协议与法务部将于2025年正式实施的“地区特化型签证（F-2-R）”政策相呼应。该制度针对在人口减少地区的大学毕业、具有优异成绩和韩语能力、并有意愿留在韩国就业的外国留学生，提供长期居留签证，为他们在地区社会扎根和进入中小企业等领域工作提供制度性支持。

根据协议内容，双方将在多个领域展开合作。它包括联合开展提升外国留学生就业竞争力的各种项目；扩充就业与定居相关的咨询及信息服务；举办地区特化型签证（F-2-R）相关政策的宣传与说明会等活动。

全州大学国际交流院院长沈永国表示：“通过与地方政府合作，我们将积极培养具备全球视野的外国人才，并为他们提供扎根本地、实现就业的支援体系。这不仅有助于地区社会的持续发展，也将进一步提升我校作为国际化大学的影响力。”他还补充说：“将来地区特化型签证（F-2-R）有望发挥更大的作用。”

就业中心主任廉京亨也指出：“希望通过此次协议，使外国留学生能够在更稳定的环境中完成学业并顺利就业，缓解地区企业的人才短缺问题。特别是在人口减少地区，外国留学生可以在所有产业领域自由就业，这将为地区发展注入新的动力。”

目前，全州大学已有74名外国留学生通过包括“地区特化型签证”在内的多种政府制度，成功在全北地区的中小企业等单位实现就业，学校也将持续强化就业支援体系，帮助更多留学生在全北地区稳定发展。

호수(NO)	종합본 게시일
949호	9월 24일(수), 오전 9시
950호	10월 22일(수), 오전 9시
951호	11월 19일(수), 오전 9시
952호	12월 17일(수), 오전 9시